

외국인과 해외동포를 위한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강정희*

1. 문제점 제기

이 글은 본 발표자가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인들과 해외동포 2, 3세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 가운데에서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강좌의 필요성에 따른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없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에서 이주해오고 있는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주 노동자가 556,746명, 유학생이 54,570명, 결혼 이주자가 122,025명(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2008년 10월 통계)으로 집계되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오는 이주민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최근 한국의 각 교회에 외국인 신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에 이주해오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들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단일문화에서 다문화 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서 한국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어 교육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들과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교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 내용도 한국 전통문화, 사회, 역사, 생활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과목들도 ‘문화로 배우는 한국어, 역사로

* 한남대학교 교수, 국어학.

배우는 한국어, 등 각 교육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기독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기독교적인 교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교회 학교나 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모임에서 사용할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쉬운 성경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해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주말 한국어 교실과 한인 교회에서 개설하는 주말 한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한글 교실에서는 한국어로 된 성경 이야기, 동화 읽기 등의 교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 1.5세나 한국어 구사 및 이해 능력이 어느 수준에 이른 청소년들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를 시청각 교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교회가 이들 청소년이나 현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주민 후세들을 위한 쉬운 성경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존 세대들이 읽는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회 안의 한글 교실에서의 성경을 통한 한국어 교육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한 해외동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성경 보급이 절실하다.

2. 이주민과 해외 동포를 위한 성서 번역 방향

번역자들은 누구나 두 언어에 능해야 한다. 두 언어 가운데 어느 한 언어가 모국어일 때 우리는 자신이 모국어에 관한 한 언어적 지식이 외국어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어색한 문장이나 표현이 많은 번역물의 대부분이 모국어인 한국어에 관한 언어내적 외적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 번역자는 물론이려니와 성서 번역자들은 번역 대상물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모국어(한국어) 이론과 언어 감각, 의식이 풍부해야만 한다. 성서 번역자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에 능통하더라도 모국어인 한국어 문법이나 의미론 및 담화 이론에 체계적인 지식이 없다면 좋은 번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쪽만 갖추어서는 충실한 번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서 번역자도 문학작품 번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모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자가 모국어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원본에 충실한 고품질의 번역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본에 충실한 고품질의 성서번역’이라는 과제에 따라서 우리는 성

서 번역자 양성과정이나 전공에 한국어학 이론 과목의 도입을 적극 수용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아울러 성서 번역 작업에도 한국 언어 또는 문학, 문화 전문가가 함께 하여야 할 것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

요즈음의 청소년들은 어려운 한자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싫어한다

교회학교 청소년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새번역』은 시대에 따른 언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새번역』에도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와 한국어 표현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과 이주민 및 해외동포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주민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로서 성경은 우선 『새번역』보다 더 쉬운 현대 한국어 구어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한국 개신교 출판사들이 최근에 쉽게 현대 한국어 구어체로 번역한 ‘사역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생명의 말씀사)』, 『현대어 성경(성서교재 간행사)』, 『쉬운 성경(아가페)』, 『우리말 성경(두란노)』 등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이 쉬워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성경 번역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와 우리말 어휘, 관용 표현 등을 쉽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법,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번역은 곧 외국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별 대상 집단과 수준 별로 하는 이른바 ‘맞춤식’ 번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 성경이 나와야 한다.

3. 한국어 문법론에서 본 〈새번역: 누가복음서〉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왜 초신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예스러운 문어체 문체와 어려운 한자어,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중세, 근대, 현대 한국어가 모두 집결되어 있는 듯한, 국어사의 ‘문헌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 성경 번역본들은 국어사적 측면에서는 한국어의 언어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국어사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요즈음의 독자들에게 기존의 번역본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언어생활을 반영하기에는 문체, 어휘 등 표현법에 있어서 그 언어 감각에 매우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번역』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현대 국어의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번역본은 문장이 간결하고 기존의 성경 판본들의 어려운 어휘들을 쉬운 어휘로 대체해 놓았다는 점에서 현대 10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수요자 요구 중심의 번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새번역』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본에서도 한국인인 본 발표자가 읽기에 어색하고,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영어식) 문장들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음에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이주민 그리고 해외동포들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새번역』보다 쉬워야 하는 이유를 『새번역』의 <누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문장, 어휘, 표현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설명하기로 한다. 설명 방법은 <누가복음서>의 1장에서 24장까지 차례대로 ‘다시보기/ 읽기 (review)’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3.1. <누가복음서>의 오류 문장

3.1.1. 피동문

우리말은 능동 표현 위주의 말이다. 고대 국어, 중세 국어 자료에서도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 표현은 매우 적다. 우리말의 사동 표현은 ‘-이/히/리/기/우/구/추’의 사동 접미사에 의한 것단형 피동)과 ‘-게 /하다’로 이루어지는 어휘 사동문(장형 사동)이 있다. 피동 표현은 사동 접미사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이/히/리/기’와(단형 피동) ‘-아/어지다’, ‘-게 되다/-를 당하다, -를 입다’ 등의 어휘 피동문(장형 피동)이 존재한다. 특히 피동 표현의 경우는 국어사 문헌들에서는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 표현보다는 어휘 피동 표현이 많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번역자들이 영어식 피동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문이 확대된다.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아/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의 남용으로 인한 ‘-아/어되어지다’와 같은 중복피동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 다음은 <누가복음서>에서 발견되는 피동문들이다. 이들 피동형으로 번역된 성경구절들은 성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말의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 좀더 한국어식 문장으로서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눅 1:36 임심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1) 이 번역본의 현대 국어로 된 문체에 대해서 이전 번역본에 익숙해져 있는 기성세대 독자들은 오히려 어색하다고 하는 반응이 많다. 이는 성서의 고어체 문체가 ‘품위’ 있는 문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때로 『개역개정』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보인다.

-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는 여자라고 부르던 그가)
 눅 1:76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더없이 높은 분의 예언자라고 부를 것이니,)
 눅 4:27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병이 낫지를 았았고/ 아무도 완치가 되지 았았고,)
 눅 8:2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벗어난, 다 나온, 완치된. 참고: 눅 8:43 혈루증으로 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눅 9:11 예수께서는……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 환자들, 병든 사람들)
 눅 9:22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
 하고서,
 (→죽음을 당하고서,)

‘죽임을 당하다’는 ‘당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인 ‘죽음을 당하다’의 의미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다’의 ‘죽임’은 ‘죽다>죽이다’의 사동 동사의 동명사 형이다. ‘죽임을 당하다’의 결합구조는 ‘사동+피동’이라는 국어문법에 없는 문장 구성을 보여주는 어색한 문장이다. 이 문장의 표면구조의 생성 과정을 의미론적으로 추적하면 다음의 세 단계의 의미 과정에서의 첫 과정 ‘죽이다’ 동명사 형에 어휘 피동 표현이 ‘당하다’를 통합한 문장이다.

- ㄱ. ‘X가 Y를 죽이다/죽게 하다’(사동형의 명사형 ; ‘죽임’)
- ㄴ. ‘Y가 죽게 되다.’ (피동형)
- ㄷ. ‘Y의 죽음’(상태)

눅 18:31 침백음을 당할 것이다.

*‘침백음’은 ‘침을 백다>침 백다’의 ‘명사+동사’의 구조인 동사구의 동사인 ‘백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여 ‘백다’를 동명사화 한 다음에 명사 ‘침’과 통합한 구성이다. 침백음은 아직 ‘떨시, 모욕’등의 명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합명사처럼 붙여 쓸 수 없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구성인 ‘공부를 하다> 공부하다’의 ‘-하다’는 명사 뒤에 결합하여 동사로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이므로 ‘공부함’으로 붙여 쓴다.

눅 24: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but they were not kept from recognizing him.)

NIV 영어 성경에는 ‘눈에 가려져서’라는 문구가 없는데 『개역』에는 이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 이 문장의 ‘눈을 가리다’는 능동과 피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른바 능격 동사로 기능한다. 능격 동사란 동일 동사 어휘항목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종을/이 울리다, 막을/이 내리다’ 등을 들 수 있다. 능격 동사로서 ‘가리다’는 이 문장에서 자동사로 기능하여 피동의 표현을 하는 자동사 기능의 ‘가려져서’가 되어야 문법적이다. ‘눈이 가려져서’는 ‘눈/앞이 가리다’라는 피동표현에 다시 ‘-어지다’의 피동을 추가하여서 중복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피동형에 ‘-어지다’를 추가 결합하여 중복 피동형을 만들어 쓰는 일이 번역 문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영어식 번역투다. 예를 들면 ‘울리다-울려지다, 생각하다-생각되다-생각되어지다.’ 등이 그것이다.

3.1.2. 격조사 용법 ‘-에게’와 ‘-에게서’ ‘-에서’ ‘-께’ ‘-더러’ ‘-에/-(으)로 /-을’

한국어는 체언과 용언에 조사와 활용어미가 첨가되어 문법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첨가어, 교착어로 분류된다. 조사의 경우 체언 뒤에 결합되어 서술어와의 문법관계, 즉 문장 안에서의 문장 성분 상의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와 체언, 부사, 문장 상당 어귀에 결합되어 선행 요소들의 ‘의미’를 추가, 부여하는 ‘보조사’가 있다. 이 글에서는 격조사 가운데에서 선행 체언을 유정물 명사를 요구하는 ‘유정물’ 처격조사(여격조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격조사 (처격/여격)	의미	용법	예
-에게	도착	- 유정물 명사 뒤에 옴 - 수여동사, - 이동동사 서술어	철수에게 주어라 너에게 간다.
-에게(서) (-한테서)	출발	- 유정물 명사 뒤 - 수혜동사	친구에게서(한테서) 온 편지
-께서	존대	- 존칭유정물 명사 뒤	예수께서
-에서	공간, 처소(출발)	- 장소 명사 뒤 - 이동동사 호응	공장에서 일한다. 서울에서 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러/-한테	cf; -에게	- 더러; 유정물 명사 뒤와	그 사람더러 갔다 오라

격조사 (치격/여격)	의미	용법	예
		‘말하다’류의 서술어와만 호응	고 말해라.
-에	처소(시간, 장소)	-장소 명사 뒤	서울에 있다. 대전에 간다.
-으로	처소(통과, 과정)	-장소 명사 뒤	대전으로 간다.
-을	대상		대전을 간다.

(1) -에게

눅 4:2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눅 9:22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여격 조사 ‘-에게’는 유정물 선행명사와 수여동사인 ‘주다’류와 호응한다. 이 문장의 서술어 ‘받다’는 수혜동사이므로 ‘이탈’의 의미를 수행하는 누구에게서로부터가 와야 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4:2, 9:22의 문장에서는 ‘악마에게, 율법학자들에게’로 수여동사 ‘주다’류와 호응하는 ‘-에게’가 쓰였다. 이 ‘악마에게, 율법학자들에게’는 ‘-에게서’의 ‘-서’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이주민, 해외동포들을 위한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그 기능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 누가복음 6:10, 19, 23, 27에서 보이는 ‘-에게(다)’는 정확하게 그 용법이 지켜진 예들이다.

눅 6:10 천사들에게 명해서,

눅 6:19 예수께서……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눅 6:23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눅 6: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2) -에게서

눅 4:35 귀신이 ……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눅 5:8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눅 6:30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눅 7:30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았음으로써……

눅 8:46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에게서’는 [+외부 지향적]의 의미자질을 가진 이동 동사와 통합하여 ‘-로부터’의 ‘이탈, 출발’의 의미를 수행한다.

(3) -더러

눅 7:8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눅 7:46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여격의 기능을 가진 누가복음 7:8, 46의 ‘-더러’는 중세국어의 ‘드리다(率)’의 부사형인 ‘드러’가 19세기에 ‘-더러’로 실사에서 허사로 문법화되어 선행하는 유정명사와 간접, 직접 인용문을 안는 ‘말하다’류의 동사 서술어에만 호응한다. 이 ‘-더러’는 현재 젊은 층에서 발화빈도수가 낮아지고 있다. 이 ‘-더러’ 대신에 ‘-한테/-보고/-보러’ 등의 조사들의 빈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문어체에서 구어체로의 언어 사용 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께(서/로)

눅 6:19 예수께서……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

눅 7:3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cf;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예수께로/ 예수께 보내어’는 읽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 동일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격조사들이 각각 자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께로 보내다’와 ‘-께 보내다’는 ‘-으로 보내다’와 ‘-에 보내다’의 차이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즉 ‘통과’와 ‘목적지’에 초점이 놓인다는 점이 다르다.

(5) 내/네-게

눅 6:19 예수께서……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

눅 7:45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눅 7:40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눅 8:39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위의 예들은 일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장이다 『새번역』에서 예수 자신을 지칭하는 문장에서 주어는 모두 ‘내’로 나타난다. ‘내 아버지, 내게’ 등이 그것인데, 우리말에서 나라, 지역, 가족, 등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지칭할 때, 그것이 단체라도 모두 ‘우리’로 표현하고 있는 언어적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번역본에 따른다면 새로 바꾼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야 한다. 그러나 실상을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일인칭 대명사 ‘내’는 ‘나+ㅣ’로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이/ㅣ’의 변이형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오는 ‘ㅣ’가 결합되어 하나로 굳어진 명사다. 중세국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상성인 ‘●내(내가) 나아간들’로 표기하였고, 소유격의 ‘내(나의)’는 ‘내 몸애 욱심 업거늘’로 접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사성점이 사라지면서 주격과 소유격의 ‘내’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주격에서는 ‘내+가’로 후기에 등장한 주격 조사 ‘-가’를 결합시켜서 소유격인 ‘나+의>내,’ 여격의 ‘나+에게>내게’의 ‘내’와 형태상 변별이 되지 않는다. 이인칭의 소유격은 ‘너+의>네’로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칭 대명사와 조사와의 결합구조 상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복음 6:19의 ‘내게다 끌어대면’과 7:45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는 ‘내가/ 나의에게다’로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결합 방식은 한국어 문법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내게다’와 ‘내게’는 ‘나에게다>내게다 끌어대면, 나에게>내게 입을 맞추지’로 ‘내게’가 ‘나에게’의 준말이라고 볼 때 구어체로서 인정할 만하다. 이와 같은 논리로 ‘내게’는 ‘너에게’의 준말로서 큰 문제가 없다.

3.1.3. 내포문에서의 명사형 어미 ‘-ㅁ/음’과 ‘-는 것’

내포문에서 어떤 문장이 명사문의 형식으로 상위문인 모문으로 안기는 방법은 명사형 어미 ‘-ㅁ/음’, ‘-기’ 그리고 ‘-는/ㄴ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어의 명사문의 발달 과정을 보면 고대국어의 동명사 형 어미 ‘-ㅁ/음’이 근대국어시기에서 ‘-ㅁ/음’의 분포가 줄어들면서 ‘-기’형과 ‘-는/ㄴ 것’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동명사 형 어미 ‘-ㅁ/음’은 대체적으로 ‘-는/ㄴ 것’으로 대체되었다.

아래 제시된 예문들의 ‘-ㅁ/음’ 명사문들은 현대국어의 문어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이들을 구어체에 해당하는 ‘-는/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럽다.

예)

가르침이 어렵다.>가르치기가 어렵다.>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병고침→ 병 고침이 어렵다.> 병 고치기가 어렵다.> 병 고치는 것이 어렵다.

눅 7:30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않아서, 않았기 때문에)

눅 8:47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 숨길 수 없는 것/사실을)

눅 8:58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 죽은 것/사실을)

눅 9:31 예수께서…… 그의 떠나가실에 대하여 말하고

(→ 그가 떠나가실 것/일/날)

(cf: 51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눅 8:46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3.1.4. 접속문에서의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의 통사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는 행위 주체가 존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동작에 결합된다. 단문의 경우는 존대 대상 인물의 동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의 용법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단문에서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문장이 확대되면 이 ‘-시-’의 결합에도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다음의 문장들은 바로 <누가복음서>의 서술자인 <누가>의 존대 대상인 예수님의 동작에 대한 서술을 번역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에 대한 용법에 일관성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눅 4:38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

눅 4:42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앞의 누가복음 4:38, 42는 예수님의 두 동작을 상태지속의 접속어미 ‘-아/어서’로 접속시킨 문장 구조가 동일한 접속문이다. 그런데 38절의 선행절의 서술어 ‘떠나다’에는 ‘-시-’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42절의 선행절에는 ‘-시-’가 보인다. 다음의 접속문들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시-’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눅 5:3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 눅 6:6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눅 6:12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눅 6:13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둘을 부르셨다.
 눅 7:6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눅 7:13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
 눅 7:14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눅 8:1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앞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문의 후행문의 서술어에는 문제의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규칙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서술어에 선행하는 동사의 활용형에는 ‘-시-’의 분포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이와 같은 문장들이 생성될 수 있는 이유를 한국어의 접속문 만들기 규칙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접속문 규칙 중에서 ‘-시-’의 생략과 관계되는 규칙으로 ‘동일성분 삭제 규칙’을 들 수 있다. 이 규칙은 선행문과 후행문에 동일 요소가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생략(삭제)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38의 문장을 접속되기 전의 단문으로 해체해서 동일 요소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1) 눅 4:38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 ㄱ.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셨다.
- ㄴ. 예수께서 시몬이 집으로 들어가셨다.

언어학의 통사론에서는 ㄱ과 ㄴ으로 해체된 두 개의 단문을 기저문이라고 한다. 이 기저문에서 동일 요소들은 첫째, 주어인 ‘예수’와 서술어 안에서의 ‘-셨-’ (←시+였-)의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와 시제 선어말 어미인 ‘-였-’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접속될 때 제일 먼저 접속어미 항목을 선택한다. 그 다음 단계로 동일요소들 중 하나를 삭제하게 되는데, 주어가 동일할 때는 선행문의 주어를 남기고 후행문의 주어를 삭제한다. 서술어 동사 어휘 항목이 동일할 경우는 선행문의 동사 항목을 삭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주어-서술어가 동일한 문장

아버지가 배와 사과를 사시었다.(최종 표면 문장)

아버지가 배를 사시었다.

아버지가 사과를 사시었다

→ 아버지가 배를, 사과를 사시었다.(주어 삭제, 서술어 동일 요소 삭제 규칙 적용)

→ 아버지가 배 사과를 사시었다.(조사 삭제, 동일요소 삭제 규칙 적용)

→ 아버지가 배와 사과를 사시었다.(접속조사 '-와' 삽입, 명사와 명사 결합 규칙 적용)

(3) 서술어가 다른 문장

눅 4:38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ㄱ.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셨다.

ㄴ. 예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ㄱ, ㄴ의 문장에서는 주어가 동일하고 서술어가 다르면서 '-시-'와 '-있-'이 동일요소로 분석된다. 이 요소들 중 선행 문장의 것만 삭제 규칙에 따라 삭제하면 누가복음 4:38의 문장이 생성된다.

ㄱ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시-있-아서, 예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있-다.(접속어미 '-아서' 선택 규칙 적용)

ㄱ"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동일 요소 : 주어, 시제 '-있-' 삭제 규칙 적용)

ㄱ"'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동일 요소: 주체존대 '-시-' 삭제 규칙 적용)

그러나 42절과 같이 동일 요소가 서술어의 구성요소일 경우 삭제 규칙은 수의적으로 적용되어 ㄱ"와 ㄱ"' 같이 선행절에 '-시-'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와 삭제된 두 종류의 접속문이 생성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서 번역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동작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이와 같은 규칙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규칙 적용의 일관성을 잃게 되면 좋은 번역문이라는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눅 8:28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cf. 좋으신 하나님, 마음씨가 좋으신.)

눅 22:17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눅 22:19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들 드리신 다음에,

누가복음 8:28, 22, 17, 19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고 있는 실수 발화 중의 하나
다.

우리말에는 ‘감사를 드리다’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에 ‘주다’의 어휘
적 존대어인 ‘드리다’를 통합해서 쓰는 ‘축하를 드리다’가 있다. 이 두 표현은 모
두 잘못된 표현이다. 감정 추상명사 ‘감사, 축하’를 동사로 전환하려면 접미사 ‘-
하다’를 결합해서 ‘감사하다 → 감사합니다, 축하하다 → 축하합니다’로 존대를
표시한다. 그런데 ‘감사 드리다, 축하 드리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려면 기본형이
‘*감사(를) 주다, *축하(를) 주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은 한국어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감사를 드리신’은 잘못된 표현이며 여기에 주
체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될 수도 없다.

우리말의 문법에서는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는 형용사에는 결합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고맙고/좋고/감사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
는 형용사이므로 자신의 감정에 주체존대의 ‘-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높으신, *고마우신/ *좋으신 *감사
하신 하나님/선생님/사장님’ 등으로 발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우신/*나쁜신 하나님’의 부정적인 감정 형용사에는 ‘-시-’의 결합을 허락하
지 않는다. 긍정적인 마음의 표현에는 ‘-시-’를 결합시키고, 부정적인 마음의 표
현에는 ‘-시-’를 결합시키지 않는 이유는²⁾ 존경스런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요
소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눅 22:27 누가 더 높으나?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2) ㄱ. “선생님은 마음/손이 참 고우세요/예쁘시네요/ *미우시네요/ *악랄하시네요.”

ㄴ. “선생님 *감사하시네요/*고마우시네요.”와 같이 평서문의 서술어부의 의미가 긍정적인 것
에 대해서는 현대 국어 화자들이 주체존대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나 속성에 대해서는 ‘-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ㄷ. “? 예쁘신/고마우신 선생님의 마음”

ㄹ. “선생님 발이 크시네요/원피스가 잘 어울리세요./ 넥타이가 멋지세요.”

등 존대 대상의 신체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문법적으로 비문법적인 용
법이 화용론에서 허용되는 이유는 화자들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언어 사용의 예로 볼 수 있
다.

동사 ‘앉다’는 그 동작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공간을 전제로 한다. 이 문장에서 ‘밥상에 앉다’는 ‘의자에 앉다’(30절, “옥좌에 앉아서” 참조)와 같이 해석 가능하다. 한국인의 상식으로 ‘밥상에 앉은’은 ‘밥상 앞에 앉은’으로 인지하지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 이주민, 해외동포들에게는 정확한 우리 문장으로 번역해주어야 한다.

3.1.5. 한국 문화로 의역한 표현

아래 보이는 예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중년층 이상의 독자들에게는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10대 청소년들이나 외국인, 이주민, 해외동포 자녀들에게는 ‘되’, ‘되질하다’, ‘들보(대들보)’, ‘쟁기’, ‘소출’, ‘물 동이를 이다(메다)’라는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는 이 어휘에 대한 언어, 문화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어휘와 표현법에 대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눅 6:37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너희가 되질 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눅 6:39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눅 9:62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

눅 20:10 포도원 소출(→수확)

눅 22:10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를 이고)

3.1.6. 어휘 선택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해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성경이 『새번역』보다 쉬워야 하는 이유는 어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내 10대 청소년들은 이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어휘’ 항목을 습득한 단계에 이른 독자층이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이주민, 해외동포 자녀들의 어휘력은 국내 10대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이러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원문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 비유, 다의어 등을 피하고 쉬운 기초 어휘나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눅 1:1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꾸미려고, 만들려고) (글을 쓴)

눅 7:14 판에 손을 대시니,

눅 8:45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눅 8:26 그들은 …… 거라사 지방에 달았다.
(도착했다.)

누가복음 1:1의 ‘손을 대다’와 7:14의 ‘손을 대다’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또한 8:26의 ‘-에 달다’도 ‘손’과 호응하여 ‘to touch’의 의미로 ‘손을 대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누가복음 1:1의 ‘손을 대다’와 8:26의 ‘지방에 달았다’는 비유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표현도 쉬운 성경 번역의 경우 기초 어휘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눅 16: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

(?*불의하다. 의롭지 않은/ 충실하지 않은 청지기)

우리말에 ‘충실하다’라는 형용사는 있어도 ‘불의하다’라는 형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청지기는 충실했다’는 문법적이지만 *‘그 청지기는 불의했다.’는 비문법적이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는 비문법적인 표현으로서 ‘충실하지 않은 청지기’로 풀어야 한다.

눅 16:20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 상처투성이, 부스럼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투성이’는 의존형태소로서 선행 명사에 결합되는 접미사다. 선행 명사인 ‘헌데’에 붙여 써야 한다. ‘헌데/곳’은 ‘헐다’의 관형형과 장소의 의존명사 ‘데’가 통합한 명사구 중세국어시기에 이미 어휘화하여 명사로 정착이 된 어형이다 이와 의미상 대립이 되는 ‘성하다’와 통합한 ‘-성한 데/ 성한 곳’은 아직 어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사구조다

눅 20:20 책잡다.(→트집을 잡다)

눅 20:47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재산을 빼앗고)

눅 23:28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20:47의 ‘가산을 삼키고’도 비유법 문장이다. 기초 어휘 ‘삼키다’의 기본 의미로 쓰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표현도 의미 전달이 쉬운 ‘빼앗고’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 23:28의 ‘나를 두고’의 타동사 ‘두다(置)’의 기본 의미는 일정한 공간에 어떤 것을 자리 잡게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 문장도 ‘두다(置)’의 의미 확장됨에 따라 선행하는 목적어가 추상명사를 허용하고 있다. [-물건]의 명사가 목적어가 될 때에는 타동사 ‘두다’는 ‘~를 위하여’의 의미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나를 두고, 자녀를 두고’는 쉽게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로 풀이해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눅 24: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while),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축복하시면서)

번역 문장 24:51의 ‘가운데’는 시공간 명사로서 기독교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와 같이 어떤 행동을 발화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 이 문장에서도 역시 ‘가운데’가 그와 비슷한 시간 개념으로 쓰였는데, ‘-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문장은 일반 한국인의 언어 의식으로는 맞는 문장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로 ‘가운데’를 축복 기도하는 일이 진행된 일정한 시간의 폭을 내포하는 시간 의존명사 ‘동안’의 의역인 선 후행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접속어미 ‘-면서’로 대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3.1.7. 문장 구조와 의미의 모호성

문장 의미의 모호성은 주어를 수식하는 절이 길거나 어떤 성분을 생략하거나 압축했을 때 흔히 발생한다. 그 예로 <누가복음서>의 첫 장인 1:1-2를 들 수 있다. 1절은 ‘주어-서술어’의 가장 단순한 문장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의 1형식의 문장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인 ‘사람’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1절의 문장을 분석해보면 두 개의 문장이 접속을 이루면서 ‘사람이’라는 명사구에 내포된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눅 1:1 [우리가운데 일어난 일들]np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np를
_i
 엮어내려고]vp1]s1 [[손을 댄 [사람이]]np- 많이 있었습니다.vp2]s2
_j

2절은 지시대명사의 빈번한 출현으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주는 문장이다2

위 문장은 대귀법에 의한 문장으로 첫째 문장은 ‘사람은 앓을 것이요’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반면에, 둘째 문장에는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다.

첫째 문장의 목적어 ‘목숨을’이 생략된 이유는 담화론적인 면에서 이 문장의 ‘목숨’은 이미 화자와 청자 사이에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째 문장의 주절의 목적어도 생략 가능한데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목숨을’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화자가 ‘목숨을’을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담화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담화론적으로 강조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문의 목적어인 ‘목숨’을 명시하고 후행문의 목적어 ‘목숨’을 생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눅 9:41 내가 언제까지 ……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위 문장의 ‘너희를 참다’는 목적어 명사항의 수식을 받는 ‘너희의 X를’의 X에 해당하는 피수식어 항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장은 그로 말미암아 정보 전달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의미 해석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눅 12:28-32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 32 두려워하지 말아라, _____ 적은 무리여,

32절에서도 ‘적은 무리여’에 선행하는 요소가 생략되어서 이 문장만으로는 무엇이 적은 무리인지 알 수가 없다. ‘믿음이’ 생략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맨 앞부분인 28절로 문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눅 17: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누가복음 17:1에서는 이야기의 첫 문장에서부터 주어와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다. ‘누가 어디/무엇에 걸려 넘어지다’의 문장에서 서술어만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 번역본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NIV에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될 일들(Things that cause people to sin)’로 되어 있다.

눅 17:6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문장은 한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피동명령문이다. 나무가 ‘뽕히다’는 ‘뽕다’

의 피동형으로서 한국어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발화한다. 그러나 ‘심다’의 피동형인 ‘심기다’는 한국인들이 별로 쓰지 않는, 발화 빈도수가 매우 적은 표현이다. 피동형 ‘뽑히다’와 ‘심기다’는 행위 주체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의 결과,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나무는 피행위자로서 행위자의 행위의 대상이므로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동명령문은 피행위자인 나무가 명령을 수행하는 행위의 주체로 해석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면구조상 비문법적인 문장의 기저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경우 의미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번역이 요구되는 것이다.

눅 18:16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 17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7절의 이 문장은 의미의 모호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7절은 선적 구조로 볼 때 부사어인 ‘어린이와 같이’가 어떤 성분을 수식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첫째 모문의 ‘주—술 관계’를 ‘누구든지—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로 보면, 이 모문의 주어인 ‘누구든지’의 안긴문장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와 같이’ 부분이다. ‘어린이와 같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선행하고 있어서 이 명사문의 서술어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꾸미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어버린다.

이 문장의 구조를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통사론적인 층위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추출해낼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우리는 담화층위로 해석의 장을 넓혀야 한다. 17절의 문제의 ‘어린이와 같이’는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린이들을 막으면 그 어린이들은 예수님(천국, 하나님 나라)께 갈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하나님 나라)께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받지(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not receive)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로, 문장 외적인 정보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둘째, 모문을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로, 부사어 ‘어린이와 같이’를 모문의 서술어부인 ‘들어갈 수 없다’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는 방법이다. 즉 ‘누구든지(주어부)—어린이와 같이(부사어부)—들어가지 못한다.(서술어부)’라는 모문에서 동사구인 ‘어린이와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안긴문장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구조의

문장이 곧 원문의 의미를 번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17절의 문장은 부사어인 ‘어린이와 같이’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의미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장의 의미의 중의성은 부사어인 ‘어린이와 같이’의 어순을 변환해줌으로써 해소시킬 수가 있다⁴⁾.

이와 같이 문장 구조상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의미의 모호성 중의성이 발생하는 예를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의미 해석의 중의성은 어휘 선택에서도 발생한다. 17절의 문제의 ‘어린이와 같이’에서 ‘-와 같이’가 바로 그것이다. 부사 ‘같이’는 ‘함께’, ‘처럼’의 의미를 가진다. 이 문장에서의 ‘같이’는 두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이와 같이’의 ‘-와 같이’는 ‘공동/동반’의 의미인 조사 ‘-와’로 말미암아 ‘같이’는 ‘동시성’의 의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와 같이’는 영어 원문(NIV)의 ‘like’의 의미인 ‘처럼’이나 조사 ‘-와’를 제거한 ‘어린이같이/처럼’으로 해석하는 편이 좋다.

눅 18: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린이 (같이/처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눅 21:9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의 문장은 전형적인 영어식 문어체 번역문이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같이 명사문으로 압축된 문장은 한국어의 구어체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명사구 내포문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전쟁과 난리가 났다는 소문’으로 서술어 ‘났다’를 회복시켜서 자연스런 구어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눅 21:16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의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눅 9:21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참조)

밑줄 친 부분은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 해석하면 ‘더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의 피동의 의미를 가진 문장처럼 보인다. 이 문장을 다시 능동문으로 해석할 경우 ‘죽이다’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16절의 ‘더러는 (X가 너희 중에 더러를) 죽일 것이다’라는 능동문에서 행위자 주어 - ‘X가’를 생략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의미의 모호성이 야기된 것이다.

4) 가.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나. 그는 고향에서 어제 온 친구를 만났다

위 예에서 가은 ‘어제’가 ‘온’을 꾸미는지, ‘친구를 만났다’를 꾸미는지 불분명하지만, 부사어의 어순을 바꾼 나은 ‘온’만을 한정하는 것이다.

눅 24:20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X에게)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20절의 문장은 수여동사 구문으로서 ‘주어-직접목적어-(간접목적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진 긴 문장으로 주요성분인 간접목적어가 생략되었다 그러므로 ‘그를 어디에/누구에게 넘겨주었는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된다. 이 이야기의 전부를 알고 있는 독자들은 담화론적인 층위에서 간단히 파악할 수 있으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독자들에게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4. 결론

『새번역』은 현대 10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수요자 요구 중심의 번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번역본에서도 한국인인 본 발표자가 읽기에 어색하고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주민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은 『새번역』보다 더 쉬운 현대 한국어 구어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으로 보면, 5-6급 정도의 한국어 수준은 초등학교 상급 학년에서 중학교 1-2학년의 어휘력과 표현, 이해력에 해당된다. 『새번역』 성경은 5급 정도의 한국어 이해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에게는 어렵다. 그 이유는 내국인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의 한국어와 문화적 배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번역』에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와 한국어 표현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과 이주민 및 해외동포들에게는 더 어려울 것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이 쉬워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번역 (communicative translation) 성경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성서 번역 작업에도 한국 언어 또는 문학, 문화 전문가가 함께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이주민 그리고 해외동포들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새번역』보다 쉬워야 하는 이유를 『새번역』의 <누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문장, 어휘, 표현법 등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피동형으로 번역된 성경구절들은 성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말의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된다.

2) 격조사 가운데에서 선행 체언을 유정물 명사를 요구하는 ‘유정물’ 처격조사(여격조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누가복음 4:2, 9:22의 문장에서는 ‘악마에게, 율법학자들에게’로 수여동사 ‘주다’류와 호응하는 ‘-에게’가 쓰였는데, ‘-에게서’의 ‘-서’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이주민, 해외동포들을 위한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그 기능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3) ‘-ㅁ/음’ 명사문들은 현대국어의 문어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모습인데 이들을 구어체에 해당하는 ‘-는/니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럽다.

4) 접속문들에서 ‘-시-’의 분포가 매우 불규칙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 접속문 규칙 중에서 ‘-시-’의 생략과 관계되는 규칙으로 선행문과 후행문에 동일 요소가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생략(삭제)하는 ‘동일성분 삭제 규칙’을 들 수 있다.

5) ‘되’, ‘되절하다’, ‘들보(대들보)’, ‘쟁기’, ‘소출’, ‘물동이를 이다(메다)’라는 어휘나 표현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중년층 이상의 독자들에게는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나 외국인, 이주민, 해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어휘와 표현법에 대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해야 한다.

6) 국내 10대 청소년들은 이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어휘’ 항목을 습득한 단계에 이른 독자층이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이주민, 해외동포 자녀들의 어휘력은 국내 10대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이러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원문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의미 파악이 어려운 비유, 다의어 등을 피하고 쉬운 기초 어휘나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수식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문장 구조상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의미의 모호성, 중의성이 발생하는 예가 있었다.

8) 누가복음 21:9의 문장은 전형적인 영어식 문어체 번역문이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같이 명사문으로 압축된 문장은 한국어의 구어체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명사구 내포문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전쟁과 난리가 났다는 소문’으로 서술어 ‘났다’를 회복시켜서 자연스런 구어체로 바꿀 필요가 있다.

9)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낯선 고어적인 표현들은 현대 국어의 구어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주요어>(Keywords)

외국인, 해외동포, 성경 번역,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번역, 새번역 성경,
Migrants in Korea, Korean Immigrants Abroad, Bible Translation,
Communicative translation, Revised Korean Standard Translation.

<참고 문헌>(References)

1. 문법론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塔出版社, 2002.
민현식, 『국어 문법 연구』, 서울: 역락출판사, 1999.
박영순, 『국어문법 교육론』, 서울: 박이정, 2005.
우인혜·라혜민, 『외국인도 쉬운 한국어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2004.
이광호, 『근대국어문법론』, 서울: 태학사, 2004.
이익섭, 『국어 문법론 강의』, 서울: 學研社, 2005.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이주행, 『한국어 문법의 이해』, 서울: 月印, 2001.
최재희, 『한국어 문법론』, 서울: 태학사, 2004.
허 용,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4.

2. 담화론

- 고영근, 『문법과 텍스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길영 외, 『한국어 화용론』, 부산: 세종출판사, 2003.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부산: 세종출판사, 2003
박영순,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4.
박영순, 『한국어 화용론』, 서울: 박이정, 2007.
이석규 외, 『텍스트 분석의 실제』, 서울: 亦樂, 2003.
이원표,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2.
이장송, 『담화 표상 이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9.
정연창, 『담화기능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0.
정희자, 『담화와 추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2004).
정희자, 『담화와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2008.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고양: 인간사랑, 2004

3. 국어학개설

- 김경훈, 『국어학개론』, 서울: 서울산업대학 출판부, 1998.
 김석근, 『언어학 개론』,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4.
 김완진·도수희, 『국어학개론』, 서울: 國家考試研究學會, 1992.
 김태엽, 『국어학개론』, 서울: 역락, 2008.
 배희임·박영준·시정곤, 『국어학개론』,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2001.
 이석주, 『국어학개론』, 서울: 대한교과서, 2005.
 이익섭, 『국어학개설』, 서울: 學研社, 2000.
 정경일 외,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서울: 박이정, 2003.
 최길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서울: 태학사, 2000
 허 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2005.

4. 의미론

- 김민수, 『국어 의미론』, 서울: 一潮閣, 1997.
 김영기, 『한국어 통사론 및 의미론 연구』, Seoul: 박이정, 2004.
 김주식, 『의미론의 길잡이』, 서울: 한국문화사, 2003.
 박영순, 『한국어 의미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윤평현, 『국어 의미론』, 서울: 역락, 2008.
 이석주, 『국어 의미론』, 서울: 개문사, 1990.
 이성범, 『언어와 의미』, 서울: 태학사, 1999.
 임지룡,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992.
 조항범, 『국어 의미론』, 서울: 와이제이학사고시방송교육본부, 1994.
 최창열·심재기·성광수, 『국어 의미론』, 서울: 開文社, 1986.

5. 성경

- 대한성서공회(2001)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개정판』/『성경전서 새번역』.

<Abstract>

**A Proposal for Easy Korean Bible Translation
for Migrants in Korea and Korean Immigrants Abroad**

Prof. Jeong Hui Kang
(Hannam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necessary of easy Korean Bible translation which can be readily understood by the migrants in Korea and Korean immigrants abroad. The starting point of this issue is the writer's personal experience which is to have been giving the lecture, 'Learning Korean Language through Korean Bible' to them during more than ten years.

Easy translation for them will have to be paraphrased the difficult Korean words derived from Chinese languages or the typical Korean idioms in the existing translations. If some expressions are not appropriate to follow this way, the usages and meanings should be explained in the footnote according to the Korean educational levels of the perspective readers.

Thus, translation for the migrants in Korea and Korean immigrants abroad must be easier than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In order to prove i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some sentences, vocabularies, expressions, etc. i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of the *RNKSV*, and proposes the substitutes with the proper Korean grammar.